

### 컨테이너 건물 광주 동명동 '스토아' 오픈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문을 연 '스토아'는 카페, 갤러리,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다목적 공간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카페... 갤러리... 공연장...

# 도심 속 문화 오아시스 꿈꾼다

### 4일 류현숙 展·아카시아밴드 공연



2층에서 내려다 본 '스토아' 내부.

광주 구도심 동명동을 걸다 낯선 건물을 발견했다. 동명동 일대에서 단연 눈에 띄는 공간이다. 거리를 지나는 다른 이들 역시 한번씩 쳐다보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셋노란 색으로 포인트를 준 컨테이너 박스 건물은 사람의 발길을 단박에 붙잡는다. 오픈된 마당의 푸른 잔디밭도 인상적이다. 은은한 조명이 깔리는 저녁에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1·2층 벽면을 활용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옛 주차장 자리에 컨테이너 박스 5개와 철제빔을 활용한 2층짜리 건물이 탄생했다. 최근 문을 연 '스토아'는 카페(캡슐커피 전문점) 겸, 갤러리 겸, 공연장이다. 작가와 대화, 공연 리허설 등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설계자 겸 주인장은 건축을 전공한 김창국(38)씨. 김씨는 유타주입대 환경조경학과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디자인대학 조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힐링건축에서 일했고 회색빛 도시에 아마존같은 정글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2010년 개인 사무실 '어반 정글'을 열었다. 주몽골대 사관과 오성 바이오밸리(선진엔지니어링 공동) 실시 설계 공모전 등에 당선됐다.

'스토아'는 컨셉이 재미있다. 'u'자 모양의 2층 규모로 막힌 곳이 별로 없다. 게이트 역할을 하는 셋노란 컨테이너 박스는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소규모 전시, 공연 준비실, 교

차거나 막는 것도 최소한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공간 이름 '스토아'는 건축 용어로는 회랑, 열주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스 시대 아고라 옆에는 스토아가 있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야외활동이 이루어졌다.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각종 상행위와 강연 등도 진행된 공간이다. 여기에 '스토아 화파'의 이성적 판단, 절제 등의 의미를 담았다.

"광주가 뉴욕이나 서울처럼 마천루가 서 있거나 개발된 건축 도시로는 경쟁력이 없죠. 옥외공간이 활성화 되고, 오래된 가옥이나 정원 등을 활용한 공간들이 많았으면 싶어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죠. 급격하고 극적인 변화 대신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광주만의 풍요로움이고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아요. 축구를 제대로 즐기는 나라는 유소년 클럽, 성인 클럽이 있고,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국가 대표가 있으니 성인 클럽, 유소년 클럽같은 작은 공간들이 많았으면 싶어요."

스토아는 개관 기념전으로 서양화가 류현숙씨를 초대했다.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출신인 류씨는 오는 14일까지 작품을 전시한다. 앞으로 초대전과 대관전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4일 오후 7시30분에는 소규모아카시아밴드가 개관 기념 공연을 갖는다. 공연 역시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열 계획이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70-8885-81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思夫展... 思父展

### 아내 이정덕 씨·딸 이선씨 '故 이강하 기획전'

무등산, 영산강. 남도사계와 그 안에 담긴 한을 가장 남도답게 담은 서양화가 고(故) 이강하 화백.

고인의 아내와 딸은 지난 2008년 56세의 짧은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화가 이강하의 추모 6주기를 맞아 그의 아내와 딸이 기획한 전시가 열린다.

아내 이정덕(여·62)씨는 오는 20일까지 양림동 대형 다방에서 열리는 '양림동 문화활동가 양성과정' '이강하, 그 도도하고 짙푸른 물너울'을 기획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이정덕씨는 지난해 은퇴 이후 주스컴퍼니가 주관한 '양림동 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했고, 주스컴퍼니가 대형다방을 문화활동가들을 위한 레저전시 공간으로 내어주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

이정덕씨는 "항상 집에 있는 남편의 자료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지인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남편에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다.

1층에는 이 화백이 생전에 썼던 노트와 작품도록, 습작 스케치북, 기행문, 각종 전시회 포스터, 소장품 등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이 전시되고 있고, 2층에는 작가의 생전 화실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전시 주제는 이씨가 남편의 자료를 정리하던 중 1991년 남편의 네 번째 개인전 당시 소설가 한승원 선생이 써준 전시 서문에서 빌려왔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슬픔과 기쁨 등 남편과의 추억들이 오롯하게 떠올라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이정덕씨는 남편과 함께 생활한 양림동에서 문화활동가로 일하며 양림동 출신 화가들을 소재로 한 '사립 갤러리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80년 5월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이 화백은 수배생활 도중 양림동으로 들어와 30년간 살았었다.

이 화백은 광주일보와도 인연이 깊다. 그는 1993년 광주일보에 '중남미 미술기행'을 12차례 연재했고, 1997년에는 '인도 미술기행'을 10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열리는 초대전 '화가 이강하'는 이 화백의 딸 이선(여·33·광주문화재단)씨가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이강하 화백이 1996년 아내 이정덕씨, 딸 선씨, 아들 조흠씨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향기로운 아테네'

"백" 연작을 통해 불교적이면서도 민족적인 것을 이야기 했던 이 화백의 작품을 평소 관심 있게 지켜봤던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전시기획을 공부한 이선씨는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인턴과 준학예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 화백의 아들 조흠 씨도 작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이 화백의 '지중해미술기행'과 '백' 연작을 통해 아버지의 예술인생과 작품을 재조명했다.

'지중해 미술기행' 연작은 이 화백이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남긴 작품들이다. 이 화백이 특유의 회화풍으로 나라별 풍속과 문화적 특징을 함축적으로 담아냈다.

이선씨는 "오랜 투병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감을 짜고 붓을 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아버지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작품을 그리고 계시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시향, 7년만에 서울 교향악축제 참가

### 내일 광주 공연·14일 예술의 전당

매년 4월 열리는 '교향악 축제'는 전국의 오케스트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지난 1989년 예술의 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첫 선을 보인 교향악 축제는 서울과 지방간의 벽을 허무는 시도와 정상급 연주자들의 협업으로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교향악 축제에 참가하지 않아 아쉬움을 줬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 7년만에 교향악 축제에 참가한다.

지난 2일 KBS 교향악단의 연주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2014 교향악 축제에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모두 18개 교향악단이 참여, 오는 18일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시향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선다. 서울 공연에 앞서 같은 레퍼토리로 광주 시민들을 먼저 만난다.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첫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루이저 밀러' 서곡이다. 예술의 전당은 참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할 음악가를 선정한다. 올해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추는 연주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씨다.

김씨는 지네티 콩쿠르, 마리아 카날스 콩쿠르, 아바도 국제바이올린 콩쿠르 등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를

합시다. 무각을 나타낸 후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초청 연주회를 하는 등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약해 왔다. 현재는 한양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주곡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협주곡 2번'이다.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곡으로 '라 캄파넬라'로 불리는 3악장이 특히 유명하다.

피날레곡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이다. 화사하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깃든 작품으로 특히 3악장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광주시향은 이번 서울 연주를 앞두고 서울 호남 향우회 등을 방문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공연 티켓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서울 티켓 4만원~2만원. 서울 티켓은 교향악단을 통해 예매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현세



김응수

### 제27회 광주시미술대전 개최

#### 한국화·조각 등 10개 부문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시지회가 제27회 광주시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응모부문은 한국화·서양화(수채화 포함)·조

각·공예·서예·건축·판화·미디어·문인화·디자인 등 10개다.

부문별로 대상에게는 각각 광주시장상과 상금 500만원이, 부문별 최우수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시상된다. 작품 수준에 따라 대상 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면 누구나 1인당 2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작품 접수 기간은 한국화·서

양화·조각·판화·디자인 부문은 5월8~9일, 서예·문인화·미디어·공예는 5월15~16일이다.

심사는 5월2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5월22일 발표된다. 출품료는 1점당 5만원이며, 동일부문 2점 출품자는 8만원이다. 문의 062-222-805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태리 가구 전문점

SINCE 1989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1899-0240 **홍스페이스 가구빌딩**